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변화 분석 및 국회 내 성주류화 강화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과제책임자 ... 김 원 홍 연구위원
☎ Tel: 02-3156-7101 ✉ kwh56@kwdimail.re.kr

요 약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은 최근 들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 인지적 의회구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여성 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 현재 의원 승계 포함 15.1%)로 증가한 상황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조직 변화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국회 내 성주류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은 전세계 국가들의 국회 내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 인지적 의회구성을 위한 조직 및 조치(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 그리고 정당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과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IPU가 조사하고 있는 성 인지적 의회구성과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국회 조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와 국회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여성 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 현재 의원 승계 포함 15.1%)로 증가한 상황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조직 변화와 함께 국회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국회 내 성주류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본 연구는 국회 내 성 인지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및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따라서 성 인지적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IPU가 최근 들어 전세계 국가의 국회를 대상으로 성 인지적 의회구성을 위한 조직 및 조치(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본 연구는 이 조사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첫째, 국회 상임위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변화, 둘째, 법안 제정 및 가결안에 대한 성차분석과 여성의제에 대한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 셋째, 남녀의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과제를 조사하고, 넷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증가에 따른 국회 조직문화의 변화정도와 향후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 다섯째,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 그 결과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라 성인지적 국회나 남성의 여성정책 의제

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16대, 17대, 18대로 가면서 여성정책관련 의제에 대한 증가와 함께 남성 의원들에게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결국, 여성 의원 증가 영향이 성 인지적 의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국회 상임위 등에 있어 여성의원의 증가가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16대 5.9%, 17대 13.0%, 18대 13.7%의 여성 의원 증가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 의사결정직에 여성 의원 수의 증가로 나타남. 실제, 여성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5.9%(각 1명씩), 17대 전반기에 17.6%(3명), 후반기 11.8%(2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18.8%(3명)로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었음. 원 구성시점을 기준으로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을 살펴보면, 16대에는 6명, 17대에는 7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5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활동을 경험하였음. 18대에 상임위원회가 16대와 17대에 비해 1개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상임위원회 참여를 성별 분석한 결과, 16대 전반기 5개의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없다가 여성 의원 수의 증가로 인해 18대 전반기의 원구성에서 여성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음. 이처럼 국회의원 여성 의원 수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여성 의원들의 증가는 의정활동 과정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임.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의 양적·질적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첫째, 먼저 법률안 발의 비율이 16대, 17대, 18대 모두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의원이 16대 5.9%에서

13%로 증가한 17대 전반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체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비율은 여성 의원의 대표율을 넘어서고 있음. 시기별로 살펴보면 17대 전반기가 대표율 대비 가장 높은 발의율을 보여주었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16대 전반기의 경우 남녀의원 대표발의 건수는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691건(93.1%)으로 남성 의원 비율 94.1%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51건(6.9%)으로 여성 의원 비율 5.9%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17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2,484건(78.9%)으로 남성 의원 비율 87.0%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666건(21.1%)으로 여성 의원 비율 13.0%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18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5,050건(83.4%)으로 남성 의원 비율 86.3%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1,005건(16.6%)으로 여성 의원 비율 13.7%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6대 대비 17대 국회 여성 의원의 증가율은 7.1%p 인데 법률안 발의 증가율은 14.2%p 증가하여 17대 여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음. 이는 16대에 비해 17대에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의원들이 극소수였던 상황보다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3배 이상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1인당 평균 법률안 제출 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음. 여성 의원이 입법 발의한 1인당 평균 건수는 16대 전반기가 3.1건, 17대 전반기가 17.1건, 18대 전반기에 24.5건으로 나타남. 그리고 남녀의원간의 1인당 평균 법률안 제출 건수도 여성 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 남녀의원간 1인당 평균 법률안 제출 건수로 살펴보면, 제16대 전반기 여성 의원은 3.1건, 남성의원 2.68건, 17대 전반기의 경우 17.1건으로 남성의원 9.55건 보다 높았음. 18대 전반기의 경우도 여성 의원은 24.5건으로 18대 전반기 남성의 19.5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다음으로 여성 의원들은 복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와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각 소관위원회의 주제에 관한 법안발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음

여성 의원수가 5.9%에 불과하였던 16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 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없었던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에서만 대표발의가 없었고, 18대 국회에서는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있었다는 점임. 각 위원회에서 법안 대표발의의 비중을 시기 전체로 살펴볼 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의 발의 비중이 대체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16대 후반기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성 의원의 대표발의 비중이 높았고, 18대 전반기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여성 의원 발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특징적으로 보임. 다만 여성 의원 대표발의안의 절대 수로 보았을 때는 행정안전(자치)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표발의 수가 전시기로 볼 때 많았고, 16대에는 여성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후 시기에는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법안발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여성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의 발의 비중이 대체로 높았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간 여성 의원들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입법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남성 의원보다 더욱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최근 들어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법안발의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 또한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성의 다양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셋째, 마지막으로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보다 여성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여성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과정에서 남녀 의원간 성 인지적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여성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처리를 위한 노력을 ‘운동’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 의원이 있었음도 알 수 있음. 일례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면, 16대와 17대에는 남성 의원의 발의는 없었고 여성 의원만이 발의(총 7건)하였음. 반면 18대 전반기에는 여성 의원의 발의가 없었던 반면 남성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으며, 총 6건이나 발의하였음. 그러나 이들 남성 의원들의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의제 개발이라기보다는, 16대, 17대에 여성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각 세부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할당 비율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여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산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육아휴직 문제의 경우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제안된 법안은 대부분 여성 의원들이 발의하였던 것이며, 이 내용들은 한 두 시기 뒤에 남성 의원들에 축소되어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여성 의원이 여성관련 법안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서 선봉을 서고 있는 것임

- ‘여성 의원의 증가는 남성 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음

첫째, 여성 의원의 증가는 남성 의원의 여성정책 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제16대 전반기부터 제18대 전반기까지 여성이 발의한 전체 법안 발의 건수 대비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에 대한 비율은 16대 전반기 25.5%에서 17대 전반기 11.9%, 18대 전반기 6.9%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반면,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여성 의원의 경

우 16대 전반기에 0.8건(전체 13건), 17대 전반기 2.0건(전체 79건), 18대 전반기 1.7건(전체 69건)이고, 남성 의원의 경우 16대 전반기에 0.04건(전체 10건), 17대 전반기 0.2건(전체 53건), 18대 전반기 0.4건(전체 111건)으로 남성의원의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법률안은 16대에 여성 의원이 발의한 25건, 남성 의원이 16건을 발의하였으며, 17대에는 여성 의원이 146건, 남성 의원이 81건을 발의하였음. 17대 여성 의원의 비율이 13.0%임을 감안하였을 때, 여성 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건수의 증가율 폭은 남성 의원의 발의건수 증가율보다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18대 전반기로 넘어오면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임. 여성 의원이 70건, 남성 의원이 111건을 발의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일면 여성 의원들의 증가가 모든 상임위에 참여하는 등 활동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의제선정의 관심사가 남성의원에게도 영향을 주어 확대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 남성 의원들은 시대적으로 생활정치 확산과 함께 안전과 육아 및 아동에 민감해지면서 여성인력활용을 증대시켜야 하는 사회 변화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과제임. 반면 여성 의원들은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좀 더 새롭고 풍부한 여성 의제 개발에서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모습들이 결합되어 18대 들어 여성 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가 남성 의원들에 비해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결국, 여성 의원 증가 영향으로 남성 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 인지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라 성 인지적 국회나 남성 의원의 여성정책 의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 것임. 결국, 여성 의원 증가 영향으로 남성 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여성 의원들의 증가는 국회의 성 인지적 조직문화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임. 여성의원의 증가는 우리나라 국회가 성 인지적 조직문화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성 인지적 행동변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성희롱적 언어 및 태도를 보였고, 야간회의 시간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가족친화적인 국회 만들기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규범성 인식 변화도 고무적이었는데, 향후 국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서론에서 제기했던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다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양성평등한 국회를 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 정책제언

가. 여성 의원 대표성 제고 및 국회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안배 고려

1) 여성 의원 대표성 제고

- 여성 의원수가 5.9%에 불과하였던 16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 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없었던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에서만 대표발의가 있었고, 18대 국회에서는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있었음
- 이는 그동안 여성관련 법제가 신설, 발전됨과 함께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 또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임
-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성 인지적 의정활동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의원 수의 증가가 필수적임
- 따라서 19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추천 30%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책과 함께 여성정치인 인재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국회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안배 고려

- 전통적으로 여성 의원들은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가족문제 등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재정적 우선순위의 결정과 국가 아젠다 형성과 관련된 위원회들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논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존재함
- 실제, 16대 전반기 원 구성 시기와 비교해 보면 당시 5개의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없다가 여성 의원수의 증가로 인해 18대 전반기의 원구성에서 비로소 여성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특정위원회에 여성 의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모든 위원회에 여성 의원 본인이 요구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당차원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나.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비중있는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여성 의원 우선권 부여

-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16대 국회에서는 2명의 여성 의원이 위원장 경험을 하였고, 17대에는 5명의 여성 의원 그리고 18대에는 전반기

3명이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함. 소속 위원회의 경우 16대의 경우 여성위원회 2명, 17대의 경우 정무(1명), 문화관광(2명), 여성위원회(2명)이었고, 18대 전반기의 경우 정무(1명), 환경노동(1명), 여성위원회(1명)로 나타남

-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을 살펴보면, 16대 국회에서는 총 6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를 경험하였고, 17대에는 7명의 여성 의원 그리고 18대에는 전반기 5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활동을 함
- 국회 내 상임위원회 배정은 대체로 전문성, 지역, 경륜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나 현재까지 여성 의원수가 소수이다 보니 여성 의원들은 주로 문화, 환경, 보건복지 등 여성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활동해 옴
-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비중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로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여성의 상임위 배정이나 간부로의 선출은 본질적으로 여성 의원 수가 증가하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성 의원에게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의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들의 역할이 의사일정 및 순서 합의 등에서부터 의제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성친화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에서부터 여성친화적 의제 발굴 및 부각 등에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상임위원장 혹은 간사의 수적 증대는 필요한 부분임

다. 국회의원 대상 성 인지 의식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 국회 각종 위원회별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는 16대보다 17대, 18대에서 성별 불문하고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발의건수는 위원회별 편차가 있음
- 18대 발의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별 여성관련 법률안을 살펴보

면,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관련 법률안은 여성 의원이 22건, 남성 의원이 25건 발의한 반면, 외교안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남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건 있었고, 정보위원회에서는 없었음

- 또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건수가 많은 상임위에서 대체로 성 인지적 발언건수가 많았으며, 법률안 심의 분위기도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녀 의원을 대상으로 보다 성 인지적 의정활동의 담보가 필요함. 이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대표성 관련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성 인지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위원회 별로 성 인지 사례발굴이나 판례집을 발간·보급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성 인지적 접근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라. 정당 정책위원회에 여성의제개발 정책자문단 구성을 통한 성 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 18대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18대 전반기에 여성 의원의 대표발의비율이 17대 후반기보다 감소함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여성정책 의제 개발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과 둘째, 여성 의원들이 전체 상임위에 최소한도 1명 이상 배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가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회 내 성 인지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 정책위원회 내 여성의제개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여성의제 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국회의원 여성보좌진의 적극적 활용 권고

- 향후 국회 내 성 인지성 증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성보좌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국회의원 대상 조직문화 관련 설문에서 60대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여성보좌관의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여성의 과소대표로 인해 모든 상임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복지, 보건, 가족 및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여성 의원수를 늘리는 정책의 선행과제로 국회의원 여성보좌진을 늘려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국회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책에 순기능적 역할이 될 것임

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조직 내 양성평등은 크로스커팅 이슈이므로, 어떤 의회든지 주류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동시에 성 주류화 접근을 취하는 병합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기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주무 위원회로서 여성가족부 외에 법무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나 기관에 대하여도 현안을 보고 받고 제언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예산안 논의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제기하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 인지 예산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 국회 내에서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여

성 의원의 수적 증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를 형성하고 정책 결정과정과 제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함

- 또한 의회에서의 가치와 규범, 규칙, 집행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관점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성 인지적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
- 특히 의회의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의원 역시 보육과 가사활동을 의회활동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며,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은 의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거나 개원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임
- 가족친화적 의회 환경은 부차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됨

아. 여성의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여성네트워크 및 여성정책 공론화 확대

- IPU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의원들은 의회에서 소수자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의식하면서 양성평등한 의회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성 의원들 간의 연대와 제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여야를 초월한 여성 의원 모임인 여성의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네트워크 및 여성정책 공론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여성의원협의체는 여성의 이익과 관심을 의제화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 또한 여성의원협의체는 시민사회 및 다른 영역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여성의원협의체는 의회 차원의 재정자원이나 지원인력, 사무실 및 회의 공간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여성 정책의 공론화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여성 의원의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켜 정당 내의 의사형성과정의 시작단계부터 여성의 의견

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자. 실용주의적 입법활동의 변화 추구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및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육시설 마련, 육아휴직 보장 등 지원책 마련과 제도적 보장 등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은 먼저, 여성 의원들에서 비롯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이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남성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각종 성범죄 및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분야의 경우, 사회적 이슈화와 그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입법부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좀 더 세심하고 여성 친화적인 조치들에 대한 대응성 역시 여성의원들에게서 비롯하는 모습을 많이 보임
- 따라서 성 인지성 확산과 여성 관련 의제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신속한 이슈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홍보수단으로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on-line)에서의 사회화를 선호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 여성 의원 대표성 제고 방안 마련
- ☐ 국회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안배 및 의사결정직 확대방안 마련
- ☐ 국회 의원 대상 성 인지성 강화 방안 제공

- ☐ 국회내 여성정책 의제개발 지원방안 마련
- ☐ 국회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

주관부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당 여성국,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